

“폐기물 발전소 가동 못하게 판결을”

〈전주시 팔복동〉

전주 푸른하늘 지킴이 시민연대, “외지 폐기물 반입 계약…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각해야”

“법원은 전주시 팔복동에 위치한 A 폐기물 고형연료(SRF) 발전소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각하라”

“전주 푸른하늘 지킴이 시민연대”는 14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돈이 생명을 대신할 수 없다는 헌법정신에 입각해 전주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환경을 파괴시키는 발전소 공사를 즉각 중지시키고 가동되지 못하도록 판결해달라”고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전주 시내 중심이나 다름없는 곳에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중금속 등을 배출하는 고형 폐기물 소각 발전소가 소리 없이 동지를 틀러다 발각된데 이어 외지에서 폐기물을 반입하는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시민 150여명이 내 아이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고자 지난 9월 전주시청 앞 광장에서 반대집회를 여는 등 행동에 나서자 전주시는 그제서야 A업체에 대한 도시계획심의를 부결하고 업체 측에 공사 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시민연대는 “하지만 A업체는 전주시의 명령에 불복해 공사를 강행하고 자 집행정지 신청을 전주지법에 냈고, 오는 16일 첫 심리가 열린다”며 “항간에는 업체 측에서 교역의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유리하게 할 것



전주 푸른 하늘 지킴이 시민연대는 14일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전주시 팔복동에 위치한 ‘폐기물 고형연료(SRF) 발전소’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라는 소문이 있어 노파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일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모든 전주 시민은 발암물질과 중금속을 마시게 된다”며 “이는 옥시 기습기 사건처럼 사망자들이 무수히 나올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아무리 업체 측

에서 정화장치 등을 근거로 안전을 약속한다 할지라도 이제 더이상 독을 풀어내는 유해물질을 안방에 둘 수 없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전주 시민이 함께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전주지법에 제출했다.

한편 A업체는 최근 전주지법 행정부에 전주시의 공사중지와 원상회복 명령 행정처분에 대해 “부당하고 재산상의 침해가 우려된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냈다.

A업체는 현재 집진기와 SRF생산동 등 각종 시설에 대한 공사를 진행 중이며, 공정률은 70%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

천사가 내려왔은 노송동 전봇대

전주 노송동 마을계획 확정 마을총회... 16개 의제 심의

천사마을인 전주시 노송동 주민들이 원도심 공동화로 침체에 빠진 마을을 변화시키기 위해 마을 정북대에 천사 디자인을 입히기로 했다. 노송동은 지난 2000년부터 ‘얼굴 없는 천사’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악명의 독지가가 17년째 연말이 되면 남몰래 소외계층을 위한 후원금을 놓고 가 ‘천사마을’로 불리고 있다.

전주시와 전주시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는 14일 전주시 혁신센터에서 노송동 주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수립 마을계획 확정을 위한 노송동 마을총회를 개최하고, 전북대에 천사 디자인을 입히는 ‘천사가 내려왔은 노송동 전봇대’를 포함한 16개 마을의제를 심의했다. 마을총회는 주민들이 직접 마을을 조사한 후 의제를 발굴·연구한 후 도출해낸 마을계획안에 대해 분과별 사업제안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투표로 우선순위와 필요성을 결정하여 마을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번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은 △천사가 내려왔은 전봇대 △천사마을 이야기길 조성 및 지도제작 △천사예술단 만들기 △어르신 대문턱 낮추기 △천사축제 법안화 및 콘텐트 개발 등 천사마을로 대표되는 노송동의 특성이 잘 반영된 16개 사업이다.

먼저, 노송동 주민들은 천사마을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어둡고 침침한 골목길을 환하게 바꾸기 위해 회색빛 전북대에 천사의 이미지를 입히는 ‘천사가 내려왔은 전봇대’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김민근 기자

또한, 주·정차 문제 해소를 위해 마을 어르신들이 관리하는 유료 공용주차장을 조성하고, 매일 정해진 날 집 앞에 고물을 내놓으면 바로 수거하는 ‘마을 반짝고물상’ 사업 등도 전개 예정이다.

시와 전주시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이날 노송동 주민총회에 이어 15일에는 진북초등학교 강당에서 진북동 주민수립 마을계획 확정을 위한 마을총회를 열 계획이다. 진북동 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함께하는 나눔장터 △진북 이야기술사 △안전골목길 △진북동 마을활성화센터 조성 △공공원 및 놀이터 주민공동체 관리 등 마을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발굴한 원도심 지역 주민주도 활성화를 위한 15개 사업들의 우선 추진 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015년 중앙동과 풍남동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오는 2019년까지 도심 공동화로 쇠퇴하고 있는 원도심 12개동에 마을계획을 수립하는 ‘원도심 지역공동체 주민주도 활성화 계획 수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7,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노송동과 진북동 등 2개동의 마을계획 수립 및 인주2동과 완산동 등 2개동의 마을계획 실행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주민들이 발굴하는 마을계획은 마을계획추진단 구성과 주민역량 강화 교육, 마을지원수요조사, 마을의제 발굴 및 연구, 주민총회의 과정을 거쳐 최종 수립되며, 마을계획 실행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거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행될 예정이다. /김민근 기자

전주 청소년상담센터우리병원 위기청소년 지원 업무협약 체결

전주시가 의료기관과 손을 맞잡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청소년들의 성장기 건강을 직접 챙긴다.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4일 전주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인 1388청소년지원단 소속의 전주우리병원과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우리병원은 위기 청소년 등 복지사각지대 청소년에 대한 의료자문과 의료직업체험 학습, 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또 성장기 척추측만증 학생에 대한 로봇견인치료 및 MRI 촬영, 전주시청소년특별지원사업 대상 청소년 간호조사과정 현장 실습 및 취업 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그동안 우리병원은 장학금 후원과 기관을 통한 기부, 청소년 진로·인성 개발 협력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다. /김민근 기자

‘코리아 드론축구 페스티벌’ 25일 전주 개최

협회장배 전국드론축구대회 · 장애물 레이싱 · 드론 코딩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

드론축구 중추도시로서 2020년 세계 드론월드컵 개최를 추진중인 전주시가 드론축구 최강자를 가리는 세 번째 전국대회를 연다.

전주시와 대한드론축구협회 설립 추진위원회는 오는 25일 전주대학교 체육관에서 ‘2017 코리아 드론축구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드론축구 전국대회인 ‘협회장배 전국드론축구대회’는 물론 드론 장애물 레이싱과 드론 코딩대회, 드론축구 시연 및 체험 등 다채롭고 재미있는 기획 행사로 꾸려져 행사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관심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는 드론기업 전시 및 홍보 행사도 함께 개최해 드론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회로 삼을 계획

이다. 특히, ‘협회장배 전국 드론축구대회’는 시와 대한드론축구협회, 전주대학교, (사)캠타중합기술원 등이 드론축구 저변 확대 및 세계화 기반 확충을 위해 마련한 메이저 공식대회로, 전주시 드론축구단을 비롯한 전국 20여 개 이상의 팀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부터는 시가 최근 전국 지방장 간담회 및 드론축구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거쳐 개정된 경기규정이 최초로 적용된다. 개정된 경기규정은 팀 포지션을 신설해 골잡이에 한해서만 득점을 인정하고, 페널티 규정도 신설해 페어플레이를 활성화함으로써 경기를 보는 재미와 몰입도를 높인 것이 핵심이다. /김민근 기자

전국 드론축구대회와 장애물 레이싱, 드론 코딩대회 선수단 및 참가자 모집은 15일까지 진행되며, 접수 및 문의는 대한드론축구협회(홈페이지 www.dronesoccer.or.kr, 전화 063-219-0420)로 연락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참가를 위해서는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wychoi@camtic.or.kr)로 보내면 되며, 조 편성 대신 추천식은 오는 17일 오후 8시, 전주월드컵경기장내 드론축구 상설체험장에서 진행되며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된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세계적인 언론매체인 뉴욕타임즈의 취재가 예정돼 있어 드론축구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순풍이 불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완산구, 강변 산책로 정비 추진

전주시 완산구가 강변 산책로를 ‘걷기 좋은 산책로’로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전주시 완산구는 1억4,000만원을 투입해 서신동 동아아파트에서 중화산동 광진햇빛안 아파트까지 총 3.4km 구간의 완충녹지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구는 시민들이 산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경사가 급하고 토사유출이 많은 구간에는 돌계단을 만들기로 했다. 또 뿌리가 뚫출돼 걷기 위험한 구간에는 아자메트를 설치할 계획이다. /김민근 기자

아울러 녹지 주변을 더럽히는 생활쓰레기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상습 쓰레기 불법 투기지역에는 녹음수 식재와 의자 설치, 바닥 포장 공사 등을 통해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할 수 있도록 완충녹지를 정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더 많은 시민들이 강변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2,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진북동 전주천동로 인근에 전주천 진입계단을 설치하는 사업도 실시할 방침이다. /김민근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or.kr *전자우편 : jvs@hanmail.net